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진정서를 써 본 일이 있다. 지인이 간혀 있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부양하는 가장임을 긍휼히 여겨 집행유예로 봐주십사 애걸복걸하는 내용이였다. 반성문보다 더 쓰기 힘든 글이 남을 위해 쓰는 진정서임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첫 문장 때문에 괴로웠다. 진정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대략 알아보았는데, 하나같이 첫 문장이 '존경하는 판사님'이었다. 정말 존경하는 부모와 스승께도 웬지 쑥스럽고 오해 받을까 봐 써 보지 못한 말을, 생면부지의 판사에게 써야 한다 말인가? 판사가 진정서를 틀림없이 읽어 주고, 진정서가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치자. 누구나 쓰듯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시작하면, 판사는 으레

'존경하는' 대신 '존중하는'

그러려니 하고 첫 문장을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존경하는'을 쓰지 않으면 판사의 감정이 상할지 모른다. 진짜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오독할 수도 있다. 불쾌할 수도 있다. "남들 다 쓰는 '존경하는' 말한마디도 안 붙였네, 성의가 없어" 어느 드라마에서처럼 '진애하는'을 쓰거나 '대쪽 같으신' '사랑해 마지않는', '뚝바로 판결해주시리라 믿는', '법의 수호자이신', '한 번도 빈 적 없지만 하늘님 같이신' 등과 같이, 남다르게 써도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다. "뉘야, 판사한테 장난 쳐?" 판사는 실제로 존경할 만한 분일 테다. 공부로 따진다면 내가 한없이 우러러 봐야 한다.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절로 존경심이 든다. 경제적인 면을 따지진 나 같이 모자란 사람은 공경을 해도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쓰기 싫었을까, 아무리 지인을 구하고자 하는 글이지만, 아무리 의례적인 표현이라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칭이 아니었기에, 그런 판에 박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용어를 쓰는 것이 저어뻘을 테다.

'존경하는'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이 토론인지, 회의인지, 질의인지, 취조인지, 말싸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언변 덕분에 곧잘 놀라고 자주 웃는다. 저렇게 재미난 분들이 계신데, 소설이 읽힐 리가 없다. 도무지 적응 안 되는 말이 '존경하는'이다. 주로 진행자인 위원장이 쓰는 말이다. 질의자가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꼭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대체 왜? 혹시 방어법일까? 그렇게 보기엔 칭하는 이나 듣는 이나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들이다. 텔레비전 보는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일까? 국회의원님을 부를 때는 앞에 '존경하는'을 붙여야 된다고. 국회의원끼리라도 존경해 주자는 것일까? 혹시 진심인 걸까? 여야를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이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동류의식의 표현? '존경하는 의원님'도 '존경하는 판사님' 못지않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관용어일 테다. 내가 추측한 것 같은 여처

구니없는 의도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위원장쯤 되어 회의 진행을 할 때 으레 쓰는 단순 관행어일 테다.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당 의원을 자격이 없다고 매도하는 이들이 위원장이 되면 '존경하는 의원님'을 입에 달게 될 테다. 어쩌면 '존경하는'은 법원과 국회뿐만 아니라, 판사 못지않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경하는 공화국'일지도. '존경하는'이라는 말, 그만하자.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존경받으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한테 칭찬 받아야 할 몫이니까. 국민의 총부리끼리 '존경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진짜 언제쯤 존경하고픈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정 무순 말을 붙이고 싶다면 '존중하는'이란 말이 어땠가. 사람끼리 존중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니 '존중하는'이라도 사용하라는 것이다.

기고

전남대 여수캠퍼스 살려야 지역 발전 앞당긴다



주승웅 국회의원(여수시 을)

지난 3일 국회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통합 이후 14년 동안 시너지 효과는커녕 불균형이 심화되어 심각하게 쇠락해가고 있는 여수캠퍼스를 어떻게 하면 지역 거점 대학으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와 국방, 대학 관계자, 여수 시민단체가 모두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회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기에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컸다. 여수시민들께서도 새벽 바람에 달려와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지켜봐 주셨다. 여수대학교는 1917년 국내 최초의 수산 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여수시의 역사이자 긍지

이며 자존심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전남대학교와의 통합 이후 급격히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통합 전인 2005년 4047명이던 전남대 여수캠퍼스 재학생 수는 2019년 기준 2865명으로 감소했고, 2005년 1219명이던 입학 정원도 올해에는 747명에 불과했다. 반면 여수 인근의 국립대학교인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재학생 수는 같은 기간에 8000여 명 선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을 믿고 통합을 했는데, 여수대학교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통합 이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규모 축소와 캠퍼스 간 불균형 심화는 지역 교육 환경의 약화와 지역 인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를 초래했고,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제 손실은 1500여 억 원에 달한다.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의 의미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본래 대학 구조 개혁은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부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간 통합 양해 각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의 통합 이행 각서 불이행과 교육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실패한 통합 정책을 불러왔고, 여수교육의 구심점마저 흔들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옛 여수대학교는 한 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여수의 상징이고 여수시민의 긍지였다. 그러한 여수대학교를 잃어버리고 여수의 교육이, 미래의 도시경쟁력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역의 문화 선도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성장이 필요하다.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통합 이행 각서에 명시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여수와 인근에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또한 울촌산단을 비롯해 여러 산업단지가 밀집해있다.

전남대 공과대학이 여수로 이전해 산단과 상생한다면 여수캠퍼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역사성을 갖추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를 더욱 전문화시키면서 화학, 제철, 물류, 문화관광 등 여수의 지역·산업적 특성을 갖춘 특화대학으로 거듭나고, 여기에 지역의 민관산학이 연계해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면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두 대학의 통합이 가져온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여수캠퍼스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교육부는 먼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희망을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전남대학교도 통합 양해 각서를 이행하고 여수캠퍼스의 인사, 행정, 재정,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여수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교육에 대한 상실감을 적지 않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국회 국정 감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수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교육부와 전남대학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종교칼럼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



정세완 원불교 광주 농성교당 교무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이 지나갔지만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다. 이제 가을의 문턱인 백로도 지났으니 가을은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리라.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가에 바람을 맞을 준비를 했었다. 이제 링링도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대체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 한 제자가 원불교 교조이신 대중사에게 질문을 했다. "수도인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대중사 답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善)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고 하였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는 사람의 일 가운데 제일 급선무가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고 하였다.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놈이 있다. 좋은 놈, 무서운 놈, 이상한 놈이다. 첫 번째 좋은 놈은 욕심내는 마음, 탐심(貪心)이다. 욕심내는 것만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다. 불 나방이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 듯 과욕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연들까지 파가망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무서운 놈이다. 무서운 놈은 성내는 마음, 진심(嗔心)이라고 한다. 나와 의견이 안 맞으면 무조건 화부터 낸다. 열 번 잘해준다가도 이 한 번의 화냄은 열 번의 선행을 다 날려버리는 무서운 놈이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지를 못한 다. 이상한 놈을 여러척은 마음, 치심(痴

심)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 하지만 알고 짓는 죄는 언젠가 고칠 기약이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고칠 기약이 없으므로 그 죄가 더 무겁다 하겠다. 좋은 놈, 무서운 놈, 이상한 놈 이 세 가지를 불가(佛家)에서는 삼독심(三毒心)이라고 한다. 사람의 모든 허물이 이 삼독심에서 시작이 된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직장인이던 젊은 시절엔 신발을 살 때 끈이 있는 신발은 사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러했냐?"고 물으니 동행한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신발 끈을 매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다고 한다. 그 끈이 보기 싫어서 신발 끈이 있는 신발을 사지 않았다고 한다. 귀농 박사님을 매지 않아도 되니 계산을 해버렸다고 한다. 왜 사람들이 멀쩡한 신발 끈을 다시 맬까? 체면은 잠시이고 지갑 속의 돈은 그 돈이 나가기 전까지 행복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럴까? 굳이 말하자면 그 행복은 마음도 욕심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라.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욕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부정당한 욕심의 편함은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체면도 무시하고 인성도 마비시키는 허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 종류의 좋은 놈, 무서운 놈, 이상한 놈들 때문에 나오지만 이 세 가지 놈들은 때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장을 해서 세상에 나온다.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다. 변산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박사님이 귀농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씨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서 옆집에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울퉁은 언제 심어요?" 할머니 왈 "응! 갈뭇 필 때", "할머니 그러면 매주풍은 언제 심어요?" "응 갈뭇 필 때"라고 하더라. 귀농 박사님은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우리들이 게을러서 허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몰라도 허물이 생긴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세 가지 놈이 공작을 못하게 견제를 해야 한다. 감시를 해야 한다. 누가 감시를 하는가? 바로咱입니다. 가을에 문턱에 명상과 사색을 통해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심축해 본다.

社說

지하철과 다중이용시설 연결 방안 강구해야

광주시가 2023-2025년 단계별로 개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맞춰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시내버스를 지하철 1·2호선과 연계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대폭 재편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해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의 초점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 1·2호선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지하철과 중복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재배치 및 환승 연계 방안,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간 기능 분담 방안 등이 용역안에 담길 주요 내용이다. 4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환승역이 생기는 등 지하철이 광주 대

중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광주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광천버스터미널(유스퀘어)과 야구장(기아챔피언스필드)에 지하철 지선 연결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대중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유스퀘어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6만 5000여명에 달하는 광주 최대 다중이용 시설이다. 기아챔피언스필드도 야구 시즌 6개월 동안 72 경기가 열리는데 타이거즈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당 평균 1만1000여 명이 찾고 있다. 광주시 또한 이런 점을 감안해 2013년 지하철 2호선 노선 확정 전에 터미널과 야구장을 노선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걸릴듯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시민들의 편의 제고와 경제성에서 더 나은 지면밀히 검토해 용역 발주 전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문화산업 거점 기지로 거듭나는 송암산단

노후한 광주 송암산업단지엔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돼 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wangju Content Cube, 이하 큐브) 착공식이 엊그제 광주시 남구 송암산업단지에서 열렸다. 큐브는 문화콘텐츠 생산·소비·체험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이다. 1만791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건적연면적 2만346㎡)로 지어진다. 여기에는 홀로그램, 모션캡처, 증강현실 등 첨단 실감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를 비롯해 콘텐츠 전시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그리고 체험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송암산단 산업단지를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송암산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인 콘텐츠·ICT 융합 문화산업 단지로 재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단 문화 인프라 구축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산업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컴퓨터형성이미지(CGI)센터, 영상복합문화관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립했으나 문화산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제 2017년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113조2165억 원) 가운데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조57억 원으로 전국 매출의 0.9%에 불과하다. 문화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한 탓도 있지만, 광주의 현실은 문화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광주시는 무엇보다 큐브 착공을 계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명실상부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게인(AGAIN) 1966'. 한국과 이탈리아의 2002한일월드컵 16강전이 열린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는 대형 카드 색션이 펼쳐졌다. 1966년 런던 월드컵에서 북한이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8강에 오른 이변을 소환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두 차례나 월드컵을 차지한 막강 아시안군단에 승리했다. 하지만 북한의 본선 진출 과정에는 한국 축구의 굴욕이 숨어 있었다.

남북축구, 평양

FIFA는 본선 16개 팀을 구성할 때 전력 차이를 근거로 유럽에 열장의 티켓을, 남미엔 네 장, 북중미에 한 장을 주었다. 남미 자리는 하나뿐.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3대륙이 지역 예선을 치렀는데 한국은 참가를 포기했다. 아시아 최강 북한과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군사 정부는 FIFA에 5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이 북한에 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듬해 '북괴를 꺾어라'는 구호 아래 중앙정보부가 주도하는 '양지 축구 팀'을 창설했다. 축구의 역사도 반복된다.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이 열린 2008년 3월과 9월. 남북대결을 앞두고 북한이

흥경기의 제 3구 개최를 고집해 한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다. 북한으로서는 평양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에 부담이 컸겠지만, 진짜 이유는 1966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어게인 1990'. 남북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모두 H조에 편성되자 북한 축구협회는 한국과의 경기를 10월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겠다는 공문을 아시아 축구연맹에 접수했다.

남북축구, 평양

이에 따라 1990년 '동일 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A대표 팀 경기가 열리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월드컵 남북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그러나 평양 경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선수단의 방북 경로와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밴두호의 애를 태우고 있다. 월드컵은 인류의 화합과 평화 실현하는 지구촌 축제다. 시원한 골이 답답한 경기를 풀어 주듯 다음 달 열리는 평양 경기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활로를 활짝 열어 주었으면 한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월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예 환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3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